

* 오 레 지 나

목차

Abstract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I. 움직임을 통한 자기조직화
 - 1. 자기조직화의 개념
 - 2. 다중적 목표의 최적화와 자기조직화 단계
 - III. 창발과 관계 구현
 - 1. 신명과 창발
 - 2. 네트워크
 - I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대구가톨릭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논문투고일 : 2015.04.30.

심사일 : 2015.05.30.

게재확정일 : 2015.06.5.

The system of self-organiz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Ecodance education

Oh, Regina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e ecodance education is a newly coined term to name a new artistic field. In this new field, a new way to educate movement through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ity and nature is formed in new illumination is explored.

The system of self-organization in dance education can be explained by the concept of multiple objectives optimization and emerging networks and through the movement based on the key concept is based on complex systems paradigm.

The ecodance pursues multi-optimization that includes optimization of meaning for forming ecothinking, body optimization for forming ecobody, optimization of movement for “emergence,” and optimization of relationships for forming ideal community. The stage of self-organization in the ecodance can be summarized : directivity → optimization → presenting the existence → feedback.

“Emergence” in the ecodance is shown through body to body movement. This concept emphasizes relations among individuals and each level of society through ecothinking, ecobody, and ecomovement.

Every organism organizes itself through relationship. At the same time, relationship helps the durability and flexibility of the vital system. Therefore, the ecodance education focuses on realization of relationship and studies various methods for realizing relationships.

key words) ecodance, open system, self-organization, optimization, emergence, network

주요어) 생태무용, 열린시스템, 자기조직화, 최적화, 창발, 네트워크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후기산업사회는 과잉생산, 과잉가동, 과잉 커뮤니케이션의 풍요를 낳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잉은 풍요가 아니라 폭력이 되어 우리 자신을 공격하고 있으며, 우울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소진증후군 같은 신경성 질환 환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를 한병철(2013)은 피로사회라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우울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소진증후군 같은 신경성 질환 환자들은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증상을 앓고 있다. 과잉 커뮤니케이션은 일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환경을 구축했고 이로 인해 일의 지속은 일상 속의 쉽을 앗아갔다. 이러한 일과 쉽의 불균형은 스트레스의 축적과 자기 소진을 가져오게 되었다.

일 중독증을 격려하는 성과 중심 사회 속에서 완벽주의자, 욕심이 많고 의무가 많은 사람,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학생, 직무상 많은 역할을 요구받는 사람 등이 쉽 없는 일상 속에서 자기 소진상태에서 이르게 되고 이러한 소진상태에 이를 수 있는 위험군의 분포는 점점 크게 확대되고 있어 사회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물질주의에서 사람중심, 생명중심으로의 질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현실이다. 내가 소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 나름대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삶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수많은 요소들이 비선형적 상호 작용을 통해 얽혀 있는 거시적인 시스템 속의 복잡성(김원갑, 2011:181)을 이해하고 스스로가 사회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자발적 질서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성을 바탕으로 창발현상을 보이는 복잡계(complex system)에 대한 논의는 과학(수학, 물리, 화학, 생물, 의학 등)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인문과학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조춘영, 2007:188).

생태예술은 근래 새롭게 조어造語된 예술영역으로 구체적으로는 자연이 인간의 몸을 통해 정서적, 지적으로 인식되고 예술을 통해 다시 규정되며 표현되는 현상에 관한 것이다. 또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예술적 반응이 자연과 인간관계를 새롭게 형성해가는 인간 실천에 관한 것이다(조경만, 2015:11). 생태무용은 이러한 생태예술로서 몸을 매개로 나, 타인, 자연과의 관계를 생태적 삶에 대한 의식 공유를 기반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하는 움직임예술이

라고 할 수 있다(오레지나, 2010:56).

생태(Eco)는 조경만(2015)이 이야기 하듯이 자연 생태계를 넘어서 자연과 인간을 총체적으로 포괄한 실재實在로 인정되어지고 있다. 또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사회 속에서 구현되어야 할 실천의 준거이며 창의와 영성의 대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생태학은 철학 및 자연의 현상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명하는 새로운 방법의 인류 과학에 대해 모델을 제공한다(Robert P. McIntosh, 1985, 김지홍 역, 2002:50). 이러한 이해 속에서 생태의 핵심 키워드 살림, 다음, 어울림(오레지나, 2010:58-59)은 지속성을 위한 자기조직화와 창발, 관계 구현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움직임은 자연과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이며 자발성을 기초로 양식화된 구체적인 관계 형성의 방법이다. 관계는 생존을 위한 전략이다. 이러한 관계는 상호 작용과 상호 의존하는 과정을 내포한다. 인간이 자연 또는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움직임이다.

생태무용교육은 '복잡계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기조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발성과 주체성, 자기를 중심으로 삶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는 데 그 중심에 몸이 있고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생태위기는 환경의 문제에서 삶의 문제까지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생태무용교육에서 자기조직화의 체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개념, 단계, 그리고 자기조직화 과정에서의 핵심키워드 등을 탐색하고 삶 속에 맞닿아 있는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태 무용교육의 학문적 체계와 실질적 구조를 확립하고자 한다.

II. 움직임을 통한 자기조직화

1. 자기조직화의 개념

Prigogine, I.¹⁾에 의하면 ‘자기조직화’는 생물계의 자발적 질서 구축원리로 일반적인 과학적 용어이다. Prigogine, I.는 1970년대 말 이후 복잡계 이론을 주장하면서 평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불안정한 비평형 상태에서 미시적인 요동의 효과로 거시적인 안정적 구조가 나타나는 과정을 ‘자기조직화’라고 불렀다. 즉 모든 개체가 끊임없이 생명력의 운동을 거듭하며 질서와 무질서의 상태를 넘나들며 스스로 새로운 임계 상황을 전개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무수히 많은 생명들의 역동적인 상호종속과 상호작용의 과정들로 묶여있다. 이러한 상호작용들은 끊임없이 불규칙적으로 변형이 되고 진행되며 형태를 발전시켜 안정된 구조로 진화되고 있는 것이다. 복잡계에서는 이를 안정과 혼돈의 미묘한 경계 속에서 적응하고 진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되고 이로써 새로운 구조를 갖춘 혁신적이고 새로워진 질서를 형성하게 되는데 최창현과 박찬홍(2007:86)은 이것을 창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보았다.

복잡성은 복잡성을 전제로 한다. 복잡성이란 어떤 체계가 나름대로의 장점과 잠재 능력을 얼마나 잘 개발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장점들의 상호 연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외부의 사물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식은 주관적으로 경험한 현실을 말한다. 그러므로 경험은 의식이 질서를 찾아 삶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확신하게 해준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은 의식의 구성 요인들인 동시에 우리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이다. 결국 의식은 의도적으로 순서화된 정보(intentionally ordered information)로 감각 기술이나 상징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가능해지는 마음의 통제 기능이다(한혜리, 2014:68,66).

그리고 이러한 복잡성의 마지막 구성요소는 의식이다(Fortey, R., 1997, 이한음 역, 2007:446). 따라서 복잡계 사회는 우리의 의식을 통해 다층적, 다원적으로 인식되며 상호의존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나가는 자기 갱신적이고, 자기 초월적이고, 자기 조절적인 자기제작 과정(심광현, 2005:63)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복잡계는 열린 시스템이므로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드나들며

¹⁾ 김원갑(2011:182)에서 재인용

‘개별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창발적인 질서(윤영수, 2005:105)를 만들어 간다.

결국, 본 연구에서의 자기조직화란 교육영역에서의 의미로 생태환경에서의 인간관계를 포함한 개별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창발적 질서로 보고 그 구조를 말하는 것이다.

2. 다중적 목표의 최적화와 자기조직화 단계

자기조직화는 생물계의 자발적 질서 구축원리로서 계의 내적 조직이 외부로부터 어떤 압력도 없이 특별한 기능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에 적응되는 과정이다. 발생 생물학적 관점에서 이것은 유기체의 발생과 성장, 분화, 형태 발생 등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김원갑, 2011:182). 나무의 성장과정은 자기조직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싹 틔우기, 뿌리 내리기, 줄기와 잎의 성장, 꽃 피우기, 열매 맺기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성되는 계의 질서와 구조, 적응을 위한 변화와 패턴들은 모두 자기조직화의 과정이며 결과들이다.

이상적인 자기조직화를 위해 유기체는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중의 목표와 다중의 형태를 목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성장과 자기방어, 보호, 공격, 번식, 생존 등을 목표로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와 다양한 패턴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생태무용교육에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생태적 사고의 형성, 생태적 신체 조성, 생태적 움직임 조직, 생태적 관계 형성 등 <표 1>과 같이 다중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신체와 움직임, 움직임을 통한 관계, 이러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사고 등은 별개가 아니라 중첩된 하나이며 전체이다. 그러므로 생태무용교육은 의미의 최적화, 몸의 최적화, 움직임의 최적화, 관계의 최적화 등을 위해 각 층위를 조직화하고 그 총체로서의 춤을 조직화하고 그 춤을 통해 삶을 조직화하는 다원적, 다층적인 특성을 갖는다.

표 1. 생태무용교육의 다중적 목표

생태무용교육의 다중적 목표				
핵심개념	목표	교육적 의미		최적화
살림	생태적 사고 형성	의식성	의식의 확장	의미의 최적화
	생태적 신체 조성	양생	생태성의 회복	몸의 최적화
다음	생태적 움직임 조직	존재 발현	창발	움직임 최적화
어울림	생태적 관계 형성	공동체성	관계망의 구축	관계의 최적화

다중적인 목표의 최적화 과정을 의미, 몸, 움직임, 관계의 측면에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의미의 최적화는 생태적 사고 즉 의식성에 관한 것으로 양적 패러다임에서 질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통해 사고의 경계 및 틀을 확장하고 총체적으로 사고체계를 변혁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 낼 수 있다. 몸의 최적화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몸 관리를 잘하는 건강에 진일보한 양생의 개념에 기초(오레지나, 2014:23)하여 자연의 일부로서의 몸의 생태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움직임의 최적화는 생태적인 신체를 통해 획득될 수 있는 움직임체계의 확립으로 의미의 최적화를 기반으로 형성될 수 있다. 관계의 최적화는 다양한 참여체계를 통한 관계망의 구축을 통해 가능해 질 수 있으며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의미의 최적화와 몸의 최적화는 생명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는 살림으로, 움직임의 최적화는 자신만의 방법을 통해 존재를 드러내는 다음으로, 관계의 최적화는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어울림으로 설명될 수 있다.

생태무용교육에서 자기조직화의 단계는

지향성 → 최적화 → 존재의 발현 → 되먹임(feedback)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사고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로서 지향성, 의식성, 공공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자기조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성이라 할 수 있다. 가치와 지향이 실천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떠한 가치와 지향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실천은 의식의 확장된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최적화 단계로서 경계의 확장, 의미의 확장과 자기방법의 탐색을 특징으로 한다. 지향은 확장을 통해 구체화되고 그 구체화를 위한 자기방법을 탐색함으로써 최적화를 위한 실천이 가능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창발의 단계로서 환경에 대한 적응과 생존을 위한 자기 존재

의 발현과 투쟁, 관계망 구축 등을 특징으로 한다. 자기다움은 기업의 경영전략, 대박음식점의 음식 노하우, 벌과 나비를 부르기 위한 꽃의 향기, 빛깔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체로서의 자기를 구축하고 보다 큰 자기로서의 공동체를 구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네 번째는 성찰의 단계로서 의미화, 가치화를 특징으로 한다. 이 단계는 자기조직의 지속을 위해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 자기조직화 단계

자기조직화 단계		
단계	과정	내용
1단계	다층적, 다원적 이해	가치의 지향, 공공성
2단계	다중목표의 최적화	자기방법의 탐색, 실천
3단계	창발	질서구축, 다양한 패턴
4단계	되먹임(feedback)	의미화, 가치화

Ⅲ. 창발과 관계 구현

1. 신명과 창발

모든 유기체는 통합된 전체이며 살아있는 시스템(Capra, F., 1982, 구윤서 외 역, 2009:337)으로 본성 상 자신의 삶을 스스로 유지하고 성장시키려는 힘을 가지고 자율적인 활동을 한다. 이러한 생명활동은 유기적인 시스템 속에서 상호 의존적, 상호 인과적 작용을 하며,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통해 획득된 결과의 총합은 살아있는 유기체의 자기생산으로 이어진다(김옥희, 2015:122-3).

김원갑(2011:181)의 주장에서 창발성이란 자기조직의 과정에서 새롭고 통일성 있는 조직이나 패턴 또는 성질들이 나타나는 속성을 말한다. 하나의 계가 미시적 수준에서 부분들 사이의 상호 행위로부터 역동적으로 발생하는 거시적 수준에서의 응집된 출현들로서의 속성과 행태, 구조 등을 보여주는 것이 창발emergence현상이며 창발의 중심적 요소가 생물체의 자기조직화 self-organization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창발적인 속성을 가진 시스템은 ‘열린

시스템’에서만 가능하다(조춘영, 2007:195). 시스템 내부의 요소와 외부의 요소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 창발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열린 시스템이란 관계 형성을 위한 의미의 확장, 지역의 확장, 참여의 확장, 소통방법의 확장 등을 의미하며 수평적이고 쌍방향적인 특징을 갖는다.

새로운 시스템 출현으로서의 창발은 새롭고 통일성 있는 조직이나 패턴 또는 성질들이 나타나는 형태와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창발은 인간을 본연의 통합적, 전인적 존재로 파악(송민영, 2007:76)하고 있는 통합integration, 전이성wholeness, 연계connection, 시스템system적 사고를 바탕으로(명지원, 2006:28)으로 한다.

생태무용교육에서 창발은 몸과 몸을 통한 움직임으로 발현된다. 이러한 몸과 움직임은 질서와 무질서, 선형과 비선형, 입자와 파동이 공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무용은 생태적 사고와 생태적 신체, 생태적 움직임(오레지나, 2011:43)을 통한 각 개인 그리고 보다 큰 개념의 개체인 공동체 등 각 층위에 대한 상호연관성과 조직화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첩과 공존의 각 층위에서 이들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다원적인 시각과 실천적 구조의 확립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예술교육의 문제점과 한계를 기능교육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청소년교육과 학교 교육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중첩과 공존으로 복잡하게 체계화되어있는 복잡계로서의 교육을 바라보지 못하고 단편만을 강조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지식과 기능교육은 의미와 태도교육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교육을 복잡계의 패러다임 속에서 이해하고 다원적인 시각으로 교육을 진단해야 한다.

그리고 복잡계 속에서 자기조직화를 위한 실천적 구조는 자기다운 방법을 통해 확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기다운 방법은 창발을 구체화하는 동력으로서의 신명을 통해 획득될 수 있다. 신명은 물질에서 비물질로, 선형에서 비선형으로 입자에서 파동으로의 전이와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몰입을 통한 신명에서 비로소 질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명이 난다는 것은 ‘깨어 있고 밝은 마음가짐이 힘차게 움직이는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천지만물과 사람의 마음 양쪽에 다 있는 창조적인 ‘생성의 의지’라고도 할 수 있다. 신명은 생명의 일깨움이다. 따라서 신이 나면 즉,

신이 깨어나면 신바람이 불고 자신만의 빛을 발하게 된다. 진정한 신명은 자유와 존중이 인정될 때 느낄 수 있으며, 그러한 상태가 바로 나로 온전한 상태인 것이다. 신명은 우리 내면에서 샘솟는 생명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다. 신명은 자연과의 합일, 내안의 '신성神性'의 일깨움을 통해 '나'를 초월하는 경험이며, 이러한 강렬한 정서적 체험을 통해 잠재된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오레지나, 2009:21-26). 신이 난다는 것은 경계를 넘어가는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가 패턴과 유형을 갖출 때 창발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기조직화는 자발적 질서 구축원리로서 자기조직화의 결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창발이며 창발을 위한 동력이 신명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은 생태무용교육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 것이며, 창발은 자기만의 패턴과 유형, 상징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창발은 다양한 요소의 관계를 통해 구현된다.

2. 네트워크

복잡계의 네트워크²⁾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생태계 연결망의 복잡성은 그 생물 다양성의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다양성을 지닌 공동체는 회복력을 가진 공동체이며,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동체이다. 즉 상호 의존성, 재생, 협력, 유연성, 다양성은 이 모든 것들의 결과이며 유지 가능성이다(Capra, F., 1996, 김용정 외 역, 1998: 48).

인간은 몸과 움직임을 통해 자연과 타인 등 다양한 개체와 관계를 형성해 간다. 이러한 관계 형성은 회복력과 적응력을 가진 생명 지속을 위한 유연성에 기여하게 된다. 자기 갱신적이고, 자기 초월적이며, 자기 조절적인 새로운 질서의 창출을 위한 자기조직화는 개별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능해진다.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생로병사를 느끼고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동물이 인간인 것처럼 사람들은 자아와 사회와 자연에 대해 느끼고 알고 그에 기초하여 어떤 개념이나 관점을 갖고 살아간다. 이때 인간은 몸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회를 이루며 자연에 참여한다. 몸은 인간 외부의 자연환경과 달리 인간 존재 그 자체로서의 '자연'이다. 이 또 하나의 자연인 몸을 갖고 사람은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인식론적 존재론적 측면에서 자아와 사회와 자연을 느끼고 알아가고 표현하며 세상을 살아간다. 몸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앎을 형성하는 것은 글로 쓰거나 말로 하는 언어보다 일차적이다(조경만, 2015:13-14).

²⁾ 네트워크는 '노드node'와 '링크link'로 구성되어 있다. 복잡적응계에서 노드는 '행위자'를 의미하고, 링크는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윤영수, 2005:285).

왕따, 고독사, 무인사회가 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가? 바로 관계 때문이다. 모든 유기체는 관계를 통해 자기를 조직화한다. 그리고 관계는 그 생명시스템의 지속성과 유연성에 기여한다. 복잡계란 개별요소들이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관계에 대한 이해 없이 관계의 구현 없이 자기조직화와 창발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무용교육에서 관계 구현을 위한 다양한 방법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생태무용교육은 근래 새롭게 조어造語된 예술영역으로 자연과 인간관계를 새롭게 형성해가는 인간 실천에 관한 움직임예술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 Eco는 자연과 인간을 총체적으로 포괄한 실재實在으로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사회 속에서 구현되어야 할 실천의 준거로 자리 잡고 있다.

복잡계 패러다임은 20세기 초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 20세기 후반 과학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문명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최신 사조로서(조춘영, 2007:1884) 생명현상과 생태계를 바라보고 있는 과학적인 담론이라 할 수 있다. 생태무용교육에서 자기조직화 체계는 ‘복잡계 패러다임’에 기초한 주요 개념들을 근거로 움직임을 통한 다중적 목표의 최적화와 창발 그리고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생태무용교육은 생태적 사고 형성을 위한 의미의 최적화, 생태적 신체 조성을 위한 몸의 최적화, 창발을 위한 움직임의 최적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관계의 최적화 등 다중적인 목표의 최적화를 특징으로 하며, 생태무용교육을 통한 자기조직화 단계는 지향성 → 최적화 → 존재의 발현 → 되먹임(feedback)으로 정리될 수 있다.

생태무용교육에서 창발은 몸과 몸을 통한 움직임으로 발현되며, 생태적 사고와 생태적 신체, 생태적 움직임을 통한 각 개인 그리고 보다 큰 개체인 공동체 등 각 층위에 대한 상호연관을 통한 자기조직화로 발현된다. 모든 유기체는 관계를 통해 자기를 조직화한다. 그리고 관계는 그 생명시스템의 지속성과

유연성에 기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무용교육은 관계 구현을 위한 다양한 방법에 집중하고 있다.

생태무용교육은 자연 및 사회 현상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예술로 조명하는 새로운 실천학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모든 개체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으며 그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자기를 조직해 간다. 이러한 시각 속에서 삶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삶은 몸과 움직임 그리고 춤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와 사회에 대한 문제를 생태무용교육에서 풀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태무용교육에 대한 학문적 체계화와 실천적 구조의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참고문헌

- 김옥희(2015), “복잡계 이론으로 본 생태무용의 내적 경험체계”,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6집 1호**, 117-131.
- 김원갑(2011), “생물학적 자기조직화와 현대건축 디자인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270호**, 181-190.
- 명지원(2006), “기존 통합교육과정의 한계와 그 극복으로서 홀리스틱 통합교육과정”, 홀리스틱교육연구학회, **홀리스틱교육연구 10권 1호**, 17-32.
- 송민영(2007), “홀리스틱 통합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홀리스틱교육연구학회, **홀리스틱교육연구 11권 1호**, 73-97.
- 심광현(2005), **프랙탈**, 현실문화연구.
- 오레지나(2009), “한국무용교육에서 신명의 의미”,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0집 제3호**, 19-30.
- _____(2010), “에코댄스의 개념”,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모더니예술 제3집**, 51-60.
- _____(2011), “에코댄스의 구조 및 교육적 의미”,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2집 제2호**, 39-51.
- _____(2014), “오행춤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5집 제4호**, 17-27.
- 윤영수(2005), **복잡계 개론**, 삼성경제연구소.
- 조경만(2015), “생태예술, 복미원주민 의례 속의 비의도적 구현과 현대사회의 의도적 실천”, 무용역사기록학회, **무용역사기록학회지 제36호**, 3-48.
- 조춘영(2007), “풍물굿의 탈현대상 — 복잡계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한국동양예술학회, **동양예술 제12호**, 183-226.
- 최창현, 박찬홍(2007), **복잡계와 동양사상**, 지샘.

한병철(2012), 김태환(역, 2012).

한혜리(2014).

Capra, F.(1996), 김용정, 김동광(역, 1998).

Fortey, R.(1997), 이한음(역, 2007).

Robert P. McIntosh(1985), 김지홍(역, 2002).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커뮤니티 댄스에서 참여 무용의 복합성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5집 1호, 61-76.

생명의 그물, 범양출판부.

생명 40억년의 비밀, 까치.

생태학의 배경-개념과 이론, 아르케.